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학교 과밀화 해결해 달라”

운병태 시장 이전기관 노조 간담회... 교육 여건 개선 건의 주차장·문화시설 확충 등 정주 여건 개선 각종 방안도 제안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이전기관 근로자들이 나주시에 학교 과밀화 현상을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나주시는 운병태 시장과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 이전기관 노동조합협의회(이하 광전노협)가 최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처음 열린 간담회에는 운 시장과 이을출 광전노협 의장, 이전기관 노조위원장 등 10명이 참석했다.

나주시는 매달 광전노협과 ‘소통의 날’을 운영하며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있다. 또 반기별 ‘나주시장과 소통의 날’을 열어 공공기관과 협력 체계를 다지고 있다. 이를 통해 나주시는 지역 발전 효과를 낼 수 있는 새로운 협력사업을 발굴해 최소 비용·최대 효과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혁신도시 기관 근로자들은 이날 혁신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건의사항을 전했다.

우선 초등학교에 이어 중학교 과밀화로 이어지는 교육 여건 개선을 건의하고 나섰다.

나주시에 따르면 혁신도시에는 유치원 6곳, 초등학교 4곳, 중학교 3곳, 고등학교 2곳 등 15개의 학교가 있다.

매성초를 신설하고, 오는 2026년 2월까지 매성중 교실 12개를 증설할 계획이지만 중·고등학교 과밀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혁신도시 주민들 생각이다. 이날 광전노협은 유치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성 중인 생활SOC복합센터에 공공 유치원을 설치할 것과 사립 중학교 신설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을출 의장은 “혁신도시 학교 과밀화 현상으로 인해 공공기관 임직원의 대도시 진출 사세가 늘고 있다”며 “혁신도시법(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담당 광역·기초 지자체가 직접 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신설 규정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운병태(오른쪽 6번째) 나주시장과 혁신도시 이전기관 노동조합협의회가 간담회를 연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나주시 측은 “학교 설립은 교육청 소관이니 전남도교육청과 공립 유치원, 중학교 신설 가능 여부를 협의하겠다”며 “복합혁신센터 사업 계획에 공공 유치원 설치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광전노협은 초등·사립중학교 신설 외에도 주차장, 문화시설 확충 등 정주 여건 개선 방안을 제안

했다.

협의회는 “점심시간 지역 상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며 “호수공원에 주차 건물을 건립하는 등 공공 주차장을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빛가람호수공원 공영주차장 등 혁신도시 공영 주차공간은 131면이 있으며, 호수공원 주변 민간 주차 공간은 1467면을 운영하고 있다. 빛가람동 주요 상가 구역은 7977면(노상+부설)의 주차 공간을 지니고 있다.

나주시 측은 이와 관련, 빛가람동에 공영주차장을 추가로 만들면 민간 주차타워 손실이 따른다는 점을 설명했다. 또 “상가 1길·상야 4길과 배매 2·3길·그린로 등 주요 상가 주차장은 각각 이용률이 43%, 68%에 그쳤다”며 “노상 불법 주차가 많아 주차장 단속과 노상 주차장을 유료화하고 부설 주차장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나주시는 혁신도시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초등학교 신설과 빛가람혁신도시 생활SOC복합센터 어린이테마파크·호수공원 수상 공연장(2027년 12월 완공 예정)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

운병태 나주시장은 “혁신도시 기반 시설을 건립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점차 가시화되어 있어 내년 부터 획기적으로 정주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빛가람 혁신도시가 전국 최상의 정주 여건을 갖춘 국가 균형발전의 이상향이 될 수 있도록 광전노협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시 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강진군 소상공인지원센터 한 달 새 단장 마치고 개소

강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끈 ‘강진군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새로 단장해 문을 열었다.

강진군은 최근 강진 오감통 시장길에 ‘강진군 소상공인지원센터’가 한 달간 새 단장을 마치고 문을 열었다고 1일 밝혔다.

센터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지난해 7월 20일 개소했다.

이번 새 단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우수 지자체 평가 최우수상 선정에 따라 받은 상금 1억5000만원으로 진행했다.

개소식에는 강진군 강진군수와 김유성 전남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전남도 내 시·군 소상공인연합회, 공무원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센터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창업부터 업체 성장, 안정, 특화 등 4단계로 나눈 맞춤형 지원을 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지원센터가 벌이는 사업은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옥외 간판·실내 단장) ▲창업 임대료 지원 ▲유자금 이차보전 지원(전남신용보증재단·은행 연계) ▲마케팅 지원(영상 제작) ▲금융·세제·건축·상표·특허 등 전문가 자문 ▲디지털 소상공인 1만명 양성 지원 ▲전기안전 점검 지원 등이 있다.

이 밖에도 ‘착한가게 육성사업’, ‘노래우산 가입 장려금 지원’, ‘떡깨비 가맹점 지역사랑상품권 연



강진 오감통 시장길에 새로 단장해 문을 연 ‘강진군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계 행사’ 등도 수시로 진행하고 있다.

또 강진군은 최근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자영업 권구역 공모에 선정돼 내년부터 강진읍 상권 활성화를 위한 국비 30억원, 군비 30억원 등 총 6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강진군 강진군수는 “새롭게 단장한 소상공인지원센터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칠 것”이라며 “강진군의 다양한 축제와 행사가 궁극적으로 강진 내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장흥군 사회적경제기업 청년활동가 6명 양성

연말까지 사업 기획·홍보·판촉 지원

장흥군이 연말까지 사회적경제기업 청년활동가 6명을 양성한다.

‘2024년 사회적경제기업 청년활동가 양성사업’은 장흥군과 전남도가 힘을 합쳐 추진하고 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청년활동가를 양성하고 있다.

청년활동가 6명은 지난 4월부터 연말까지 9개월간 사업 기획과 기업 홍보, 판촉 등 지원을 받는다. 또 사회적경제기업 등을 방문해 공동체 중심 경제 생태계를 파악할 계획이다.

전남도가 주관하는 간담회도 참석한다. 소설미

디어(SNS)를 활용한 기업 홍보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청년활동가들은 장흥지역 사회적기업 9곳을 찾아 공동체 중심 경제활동을 살피고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

이들은 기업의 애로 사항을 듣고 홍보 책자를 제작했다. 신규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을 위한 맞춤형 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김성 장흥군수는 “청년활동가 양성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며 “청년이 장흥에 인성적으로 정착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kwangju.co.kr>

함평군, 대만 식품 박람회 참여 농특산물 홍보

시식회 등 열어 우수성 알려

함평군은 대만에서 열리는 국제 식품 박람회에 참여해 함평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말까지 나흘간 열린 ‘2024 대만국제식품박람회’(푸드 타이페이·Food Taipei)에는 이상의 함평군수가 함평군 농특산물 현장 홍보에 나섰다.

이 군수는 함평 농특산물 시식회를 열고 방문객에게 함평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렸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이번 박람회에 자지단체로 참여한 기관은 함평군이 유일했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푸드 타이페이는 대만에서 열리는 대규모 식품박람회”라며 “현지 업체와 구매 담당자(바이어)에게 함평 농특산물을 크게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도 인도네시아와 홍콩 등 주요 수출대상국에 함평 농특산물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성군 귀농학교 학생들이 황룡면에 있는 귀농체험동지를 찾아 귀농 준비 과정을 살피고 있다.

장성군 귀농학교 ‘귀농체험동지’ 3곳 운영

귀농인 정착 다양한 지원

장성군은 지역에 살면서 귀농·귀촌을 준비할 수 있는 ‘귀농체험동지’를 운영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도시민에게 임시 거주 공간을 제공하는 ‘귀농체험동지’는 남면 2곳, 황룡면 1곳에 운영하고 있다.

장성군 귀농학교는 ‘귀농체험동지’ 등 초기 귀농인이 장성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귀농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1번지 장성 탐색’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귀농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귀농·귀촌의 이해와 설계, 기초 토양 관리법, 소형 농기계 교육 등을 받았다.

또 ‘귀농체험동지’와 ‘전남에서 살아보기’ 현장을 함께 찾아가 귀농 선배들의 비법을 살펴봤다. ‘전남에서 살아보기’도 귀농체험동지와 같이 도시민에게 농촌에 거주할 기회를 주고 있다.

장성군은 이 밖에도 신규 농업인에게 현장 실습과 농가 주택 수리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 농업기술센터, 장성군 귀농귀촌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담양 슬로시티 관광 서포터즈 29명 활동 시작

2개월 양성교육 수료...관광 자원 개발하고 지역관광 활성화



담양 ‘슬로시티 관광 서포터즈’로 활동할 29명이 안전 교육을 받고 있다. <담양군 제공>

담양 ‘느림의 미학’을 널리 알릴 ‘슬로시티 관광 서포터즈’ 29명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담양군은 최근 ‘슬로시티 관광 서포터즈’ 양성 교육을 수료한 29명을 슬로시티 서포터즈로 위촉했다고 1일 밝혔다.

‘슬로시티 관광 서포터즈’에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농촌체험 지도사와 체험 마을 지도자, 체험 전문가, 문화관광 해설사 등이 참여한다.

이들은 지난 4월 17일부터 6월 19일까지 ‘슬로공동체’ ‘슬로관광 체험 상품’ ‘슬로관광 콘텐츠 기획·운영’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았다.

슬로시티 관광 서포터즈는 각 마을의 특색있는 관광 자원을 개발하고, 주민들과 힘을 합쳐 지역 관광을 활성화한다.

담양군은 주요 명소에만 집중된 관광객을 마을 단위에도 유치할 수 있도록 관광 홍보단 제도를 운용하게 됐다.

서포터즈는 동아리 활동을 하며 담양 관광 현장을 파악하고 마을 체험 행사를 개발·운영할 계획이다.

담양군은 이들의 동아리 활동을 지원한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앞으로 관광지뿐만 아니라 담양군 전역의 관광 활성화를 통해 군민 소득과 생활 인구 증대를 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화순군 교통혼잡 지역 ‘한쪽 주차제’ 주민 호응

화순군이 올해 1월부터 화순읍에서 시행하고 있는 ‘한쪽 주차제’에 대해 주민 10명 중 9명꼴로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쪽 주차제’는 교통 혼잡 구간인 화순읍 선거관리위원회 회전교차로에서 만연교까지 620m 구간에서 지난 1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화순군은 지난해 12월 ‘한쪽 주차제’ 운영 방법

을 논의하기 위해 주민 설명회를 벌였다. 이 자리에서 한쪽 주차제 시행 6개월이 넘으면 주민 만족도 조사를 하기로 했다.

화순군이 지난달 17일부터 21일까지 대안면·비대면 방식으로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105명의 85%는 ‘한쪽 주차제’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64%는 한쪽 주차제 운영 방법을 ‘현행대로 유지하자’고 말했다.

한쪽 주차제 구간에서는 하루 6시간 주차를 할 수 있다. 주차 단속구간을 20분 유예하고, 일요일마다 지정 기준 주차 허용구간을 변경하는 현행 방법을 계속 지속할 계획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더 나은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한쪽 주차제의 성공적인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협조해준 군민에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